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16일(금) 총 4매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당자	• 국제회의추진팀장 • 담당자	전현주 ☎458-7231 이승진 ☎458-72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2025 APEC 인천 유치 선봉에 서**  
**- 해외출장 첫 일정 APEC 사무총장 만나 2025 APEC 인천 유치의사 표명 -**  
**- 인천은 APEC 개최 최적의 도시이자 모든 것이 준비된 도시 -**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첫 일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9월 16일 싱가포르에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을 방문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사무총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 등을 공유하고, 2025년 한국 개최가 확정된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기원 기념품 및 인천 홍보 브로슈어, 책자 등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있고, APEC의 3대 목표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APEC 개최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APEC 사무총장은 “APEC 유치를 위해 사무국을 방문한 자치단체장은 처음”이라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인천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우리 APEC 팀이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 고위관리 및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 간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대전, 경북 경주 등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등 다수의 국제행사 경험과 함께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 및 물적자원이 강점으로 꼽힌다.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할 경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약 523억 원의 직접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약 1조 5,32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0,571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사진 및 참고자료(APEC 및 2025 정상회의 개요)>

<관련사진>



## APEC 및 2025 정상회의 개요

### □ APEC 개요

- 명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출범 : 1989년 호주 캔버라 ※ 1993년 정상 회의 격상(미국 클린턴 대통령 제안)
- 본부 : 싱가포르
- 특징 :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

#### 총면적

- 6,289만 km<sup>2</sup>(전세계의 46.1%)

#### 총인구

- 29억명(전세계의 37.9%)

#### 총교역량

- 약 9.5조 US달러(전세계의 50%)

#### 명목GDP

- 약 53.8조 US달러(전세계의 61.5%)

※ 2019년 기준(단, 인구는 2020. 7월 말 기준)

- 목표 :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  
- (21~40년) 푸트라자야 비전(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회원국 : 총 21개국  
- 동아시아 (12)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 미주 (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大洋주 등 (4)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 행사개요

- 행사명 :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 개최시기 : 2025년 11월 (1주간) ※ 정상회의 외 연중 100여일 이상 회의 개최
- 개최국 : 한국 ※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개최도시 선정 예정
- 참가규모 : 21개국 6,000여명(각국 정상 및 각급 각료, 기자 등)
- 주 최 : 외교부 및 아시아경제협력체(APEC)